

# 자비 수행 과정 담긴 팔리어 계송 선율에 실어

### 정목 스님 낭독 더해진 이미 우이의 '자비송' 스페셜 앨범 발매



이미우이 자비송 앨범 표지

“저를 위험과 증오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마음과 몸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하소서, 저의 부모님과 스승 친척과 벗들, 함께 길을 가는 도반들 모두가 마음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유체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소서, 모두가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을 보살피게 하소서.”

이미 우이(Imee Ooi)의 '자비송'이 정목 스님의 낭독을 가미해 새롭게 탄생했다. 불교명상음악의 대표 음반 중 하나인 자비송은 사랑과 자비의 수행 과정이 담긴 팔리어 계송을 음성으로 듣는 자애관(慈愛觀) 수행서다.

불교의 만트라를 하나의 음악 장르로 발전시켰다고 평가받는 이 음반은 '최신 스페셜 한국판'으로, 오리지널 앨범에 '정목 스님의 우리말 낭송 자비송'이 더해져 주목된다. 이미 우이는 말레이시아 화교계 불자가수이자 작곡가로 유주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자비송에 담았다.

팔리어로 쓰여진 가사는 위빠사나 명상수행자인 수지와(Ven. Sujiva) 스님이 '자애경(慈愛經)' 등을 바탕으로 작사했다.

런닝 타임이 무려 80여분에 달하며 3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했다. 첫번째 곡은

이미 우이의 목소리로 팔리어로 된 자비송을 노래한다. 2번째 곡은 서양에 불교의 자애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비송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영어로 번역한 자비송이 낭송된다.

3번째 곡은 스페셜 트랙으로 '유나 방송' 대표 김재진 시인이 가사를 가다

〈자애경〉 등을 중심으로 작사  
팔리어 · 영어 · 한국어로 독음  
런닝타임 80여분, 3개 트랙 구성  
정목 스님 한국어 낭독 '주목'

듣고, 정목 스님이 낭독해 깊은 울림을 준다.

유려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에 정목 스님의 목소리가 가미되어 가슴속 깊이 파스한 사랑과 자비심을 일깨우고, 끝없는 평온과 환희심을 불러일으켜



한국어로 자비송을 낭독한 정목 스님

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다.

자비송은 솔하기 내용이 바람결을 따라 세상으로 퍼져듯이 가슴속 깊이 번져온다. 아름다운 찬양과 음악선율은 마음의 안정과 힐링, 고요한 명상의



말레이시아 화교계 불자가수 이미 우이

상태에 들게 한다. 그래서 자비송은 명상, 요가, 테라피 음악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병원 등에서까지 널리 사용되어 치유 음악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010-5415-179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만트라를 새 음악 장르로 정립시킨 불자 뮤지션 '이미 우이'는?

이미 우이(Imee Ooi)는 서부 말레이시아에 있는 광산도시인 타이핑(Taiping)에서 태어났다. 한자 이름은 황혜음(黃慧音, Huang Huiyin)으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다. 클래식 피아니스트로 불교전통의 경전, 만트라, 다라니 등을 가사로 작곡과 편곡하고 노래하는 뮤지션이자 뮤직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다.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북경어, 광둥어, 영어 등의 7개 국어로 노래하며, 지금까지 자비송, 금강경, 범음 반야바라밀다심경, 음 마니 반메 흠 등 50장 이상의 음반을 발표했다.

'불교의 찬트를 현대화하여 만트라를 새로운 음악 장르로 발전시키고 그 열매에 올려놓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대표적인 뮤지션으로 전세계 불교명상음악계에서 찬사와 평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또한 이미 우이는 말레이시아 최고 뮤지컬 스타트라, 문성공주, 보름달 위에서 등의 음악을 작곡하고 연출했다. 중국, 대만을 비롯한 중화권 국가들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미우이는 불교전통의 경전, 만트라, 다라니 그리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순수한 목소리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 있다.

## 흙 속에서 보살의 미소를 찾다

허경혜 개인전 11월 18일~24일... 조계사 나무갤러리서



허경혜 작가의 나한상.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나한과 동자승 등 옷칠 토기 42점을 선보인다.

허경혜 작가가 11월 18일~24일 '흙 속에서 보살의 미소'를 조계사 나무갤러리서 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나한과 동자승 등 옷칠 토기 작품 42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10여년 머릿속에 그려오던 나한의 모습을 작품에 담아냈다고 말한다. "2002년 조계사에 동자승을 주제로 전시를 연 이후 나한을 주제로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후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한들을 흙으로 빚어내었습니다." 허 작가는 한국인의 얼굴을 주제로 작품을 이어오다가 1999년 절에서 3개월 산 것이 인연이 되어 이후부터 불교 관련 작

품에 정성을 쏟고 있다. "나한은 신앙의 대상이고 깨달은 이들이니 이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오랜 작업을 하며 위엄의 얼굴이 아니라 자유로운 모습 자연인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작업 전에 향을 피워 기도하기도 했고 현실 생활 속에서도 주력을 놓치지 않으며 작업에 임했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나한 동자승 이외에도 다구 등 옷칠 작품들을 선보인다. 앞으로 허 씨는 부산 기장 청량사에 500나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054)941-0371 정혜숙 기자

## 불교방송 어린이·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

11월 15일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10개 팀 참가

BBS 불교방송이 11월 15일 제 5회 어린이·청소년 창작 찬불동요제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했다.

'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찬불동요제는 예심을 거쳐 선발된

10개 팀이 참가 △부처님 미소처럼 △템플 플레이에서 △보리수 그늘아래 △석가모니 △부처님 되자 △바라밀 △산사로 오세요 △오계를 지켜요 △연등을 들고 △연잎에 비 내리면 등으로 음성공양을 펼쳤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백만원, 최우수상에는 상금 백만원, 우수상 2명과 노벨대상에는 상금 50만원이 각각 주어졌다.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의 저변을 넓히는 찬불동요 창작의 산실 불교방송 찬불 동요제는 2010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다섯 번째로 열렸다.

정혜숙 기자

##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발걸음, '동행'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기획전... 11월 26일~12월 9일

조계종 총무원은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기획전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발걸음, 동행'전을 11월 26일~12월 9일 아라아트센터에서 연다.

이번 전시에는 불교미술대전 역대 수상작가의 작품은 물론, 불교적 사상과 색채가 담긴 작가 27명의 작품 48점이 전시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2012년부터 매년 공모전으로 시행해오던 기존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공모전과 기획전을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교미술대전 출신 작가의 육성뿐 아니라 불교미술계

진흥의 방법까지 모색, 보다 굳건한 불교미술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한다.

22명이 참여한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역대 수상자 전시에서는 △조각에 김광열, 김성기, 류종상, 민승기, 이인호, 이재순, 이진형, 조병현, 허길량 △회화에 김의식, 손연철, 신진환, 이수예, 일오 스님, 전연호 △공예에 김승렬, 명천 스님, 안명선, 오해균, 이경숙, 이지연, 정찬민이 참여한다. 또한 불교미술 관련 초대작가는 5명으로 김양동, 김영희, 성각 스님, 송근영, 최종태가 참여한다.

김광열 작가의 '관세음보살'은 한쪽 다리는 곧추 세우고 다른 한쪽 다리는 대좌 아래로 내려뜨린 자세인 유희좌의 관세음보살을 정교하게 그려냈다.

류종상 작가는 황토와 모시, 삼베 등을 이용해 흙의 내구성을 강화한 새로운 기법의 보살상을 보여준다. 허길량 작가는 연잎 위에 앉아 있는 '관음보살'과 과거불이며 법신불이기도 한 '비로자나불'을 표현했다.

또한 신진환 작가는 미국 허미티지 박물관에서 반환된 조선불화 '석가삼존도'를 모사했다. 이수예 작가는 보물 1552호 대홍사 괘불탱의 우협시보살을 원본크기로 재구성한 '관불'을 선보인다.

전시개막식은 11월 26일, 오후 3시에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3층에서 개최된다. (02)733-1981 정혜숙 기자

## 핑크북다 '맥의 맥을 짚다'

11월 30일까지 문화공간 라임서

불자 미술인들의 모임 핑크북다의 '맥(脈)의 맥을 짚다'가 11월 30일까지 종로구 옥인동 문화공간 라임에서 열린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 전공자 8명의 작가가 총 20여점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는 회화, 공예, 패션, 시, 작곡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선보인다. 작가로는 윤유나, 이명야, 이정은, 전경희, 정윤영, 유리정, 조수연, 허효진 등이 참여한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허효진 작가는 "우리 주변의 맥을 짚어보고자 기획된 전시다.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견되는 맥의 흐름과 순환을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통해 이해해 보고 이를 관람객과 공유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 허 작가는 "혈맥(血脈), 맥박(脈搏)과 같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맥, 혹은 전통의 맥(脈), 맥락(脈絡)처럼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역할을 분명히 찾을 수 있는 맥(脈)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010-6260-0574 정혜숙 기자

## 신비한 '만사대길부' 칭찬하세요

특허출원번호 30-2014-0051973호

"하는 일 마다 무언가 가로막는 느낌이고, 풀릴 듯 안 풀리는 일들을 만사대길부가 해결해주는 신비함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 회사 경영
- 취직 문제
- 결혼 문제
- 가정 문제
- 질병 문제

- ▶ 학생책상에(머리가 맑아진다)
- ▶ 자동차운전석에(안전운전에 도움)
- ▶ 화장대에(가정에 액운을 막아준다)
- ▶ 회사 사무실 및 생산공장 안전에 도움

※ 주문에 의해 18K도금으로도 제작 가능함

※ 특별 보급가

· 대 : 60,000만원

크기 - 가로 14cm x 세로 15cm

· 소 : 40,000만원

크기 - 가로 11cm x 세로 12cm

※ 재질 : 원목 위에 금속판을 볼로 구워서 경명주사로 매칭한 작품

사찰 주지스님의 신도에게 선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만사대길부

시·도별 지사(총판) 모집

계좌번호 : (우체국 010017-02-614770 김필성) | 상담전화 : 010-2962-0115

##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